

석사학위논문

무용창작
「Happy ending」에 대한 연구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신 상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용

무용창작
「Happy ending」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reative Dance Work,
「Happy ending」

202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신상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용

무용창작
「Happy ending」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reative Dance Work,
「Happy ending」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신 상 회

신상희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박 재홍 (인)

심 사 위 원 김남 용 (인)

심 사 위 원 정 석순 (인)

국 문 초 록

무용창작 「Happy ending」에 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신 상 회

본 논문은 히키코모리에 대하여 본 연구자가 해석한 작품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 하지만 이내 본인만의 안식처로 돌아간다는 결말에 대한 연구와 작품 분석이다.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는 친구가 한명도 없거나 사회일원으로써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친구 이외 가족들간에 감정적 교류와 대화가 없고, 부모의 양육방식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유로운 방임형과 지나친 과잉보호형이 많다. 또한 오늘날 사회 문제로 화두가 되어지는 입시 준비교육, 입시경쟁,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등에서 많은 교육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문제와 사회 전체로서의 사회 구조 문제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다.

사람들에게 받은 모진 말들과 험담, 시기 질투, 타인으로부터 받는 시선으로 받는 따가운 눈초리, 외모지상주의, 성추행, 폭력, 따돌림, 취업 실패, 부모의 과잉 간섭 등 사회적, 가정적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기자신을 본인이 생각하는 보호처에 몸을 숨기고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중 본 안무자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대인관계로 인해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본인만의 편안함과 평온함을 인식하고 있는 공간에서 자발적인 은둔형 외톨이 즉 히키코모리를 선택한 ‘나’라는 인물을 만들어 소라게라는 소재에 비유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소라게는 성장하면서 작은 소라에서 좀 더 큰 소라로 이동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에게 Hermit crad(은둔자 게)라고 불린다. 이 특징을 이용하여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이동하는 소라게를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에 소재로 사용하였다.

수면 위를 바라보지만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내 포기하고 소라를 통해 이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은둔형 외톨이와 많이 닮았다고 본 안무자는 생각한다.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 표현 및 분석 하였다.

【주요어】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소라게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2
2.1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2
2.2 은둔형 외톨이의 원인	3
2.3 은둔형 외톨이의 정신장애	5
III. 작품의 개요	6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6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매체	10
3.2.1 움직임 표현 방법	10
3.2.2 의상	11
3.2.3 소품	12
3.2.4 조명	13
3.2.5 음악	16
IV. 작품 분석	17
4.1 작품 의도	17
4.2 작품 내용	18
4.3 Intro : 고립된 삶	19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19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0
4.3.3 음악	20
4.3.4 무대장치 및 조명	21
4.4 1장 : 고립된 공간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	22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22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2
4.4.3	음악	27
4.4.4	무대장치 및 조명	27
4.5	2장 : 한계를 넘기 위한 도전과 실패	30
4.5.1	내용 및 안무 의도	30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1
4.5.3	음악	32
4.5.4	무대장치 및 조명	33
4.6	3장 : 극복 실패	34
4.6.1	내용 및 안무 의도	34
4.6.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5
4.6.3	음악	36
4.6.4	무대장치 및 조명	37
V.	결 론	39
	참 고 문 헌	41
	부 록	42
	프로그램 북	43
	ABSTRACT	46

표 목 차

[표 1-1] 장면의 특성 /Intro	6
[표 1-2] 장면의 특성 /1장	7
[표 1-3] 장면의 특성 /2-1장	7
[표 1-4] 장면의 특성 /2-2장	8
[표 1-5] 장면의 특성 /2-3장	8
[표 1-6] 장면의 특성 /3장	8
[표 2] 움직임 표현 방법	10
[표 3] 조명의 구성	13

그림 목 차

[그림 1-1] Intro: 플로어 패턴	20
[그림 2] Intro: 조명 플랜	21
[그림 3-1] 1장: 플로어 패턴	26
[그림 3-2] 1장: 플로어 패턴	26
[그림 3-3] 1장: 플로어 패턴	27
[그림 3-4] 1장: 플로어 패턴	27
[그림 4-1] 1장: 조명 플랜	27
[그림 4-2] 1장: 조명 플랜	28
[그림 4-3] 1장: 조명 플랜	28
[그림 4-4] 1장: 조명 플랜	29
[그림 5-1] 2장: 플로어 패턴	32
[그림 5-2] 2장: 플로어 패턴	32
[그림 5-3] 2장: 플로어 패턴	32
[그림 5-4] 2장: 플로어 패턴	32
[그림 6-1] 2장: 조명 플랜	33
[그림 6-2] 2장: 조명 플랜	33
[그림 7-1] 3장: 플로어 패턴	36
[그림 7-2] 3장: 플로어 패턴	36
[그림 7-3] 3장: 플로어 패턴	36
[그림 7-4] 3장: 플로어 패턴	36
[그림 8-1] 3장: 조명 플랜	37
[그림 8-2] 3장: 조명 플랜	37
[그림 8-3] 3장: 조명 플랜	37

사 진 목 차

[사진 1] 무용수 A 의상	11
[사진 2] 무용수 B 의상	11
[사진 3] 소품: 의자	12
[사진 4-1] Intro 조명	14
[사진 4-2] 1장 조명	14
[사진 4-3] 2장 조명	14
[사진 4-4] 3장 조명	15
[사진 4-5] 결말 조명	15
[사진 5] Intro: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동하는 장면	19
[사진 6] Intro: 큰 집으로 이동 후 장면	19
[사진 7] 장소 이동	21
[사진 8] 장소 이동	22
[사진 9] 고립된 상황	22
[사진 10] 내미는 손길	23
[사진 11] 위로의 포옹	23
[사진 12] 타인에 대한 경계	23
[사진 13] 타인에 의해 이동	23
[사진 14] 타인의 대한 경계	24
[사진 15] 타인과 적응하지 못함	24
[사진 16] 이끌려 가는 무용수 A	25
[사진 17] 우호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본인의 한계를 넘으려는 노력 ...	25
[사진 18]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	25
[사진 19] 같이 함께하자는 모습	25
[사진 20] 타인을 믿어 보기로 함	26
[사진 21] 여전히 서로 다른 심리	26
[사진 22] 1장: 조명 플랜	27
[사진 23] 1장: 조명 플랜	28

[사진 24] 1장: 조명 플랜	28
[사진 25] 1장: 조명 플랜	29
[사진 26] 2장: 심리 변화	30
[사진 27] 2장: 심리 변화	31
[사진 28] 2장: 타인에게 적응	31
[사진 29] 2장: 중립된 마음	31
[사진 30] 2장: 점점 포기하는 모습	31
[사진 31] 2장: 조명 플랜	33
[사진 32] 2장: 조명 플랜	33
[사진 33] 3장: 극복 실패	34
[사진 34] 3장: 체자리 걸음	35
[사진 35] 3장: 마지막 손길	35
[사진 36] 3장: 결국 포기	35
[사진 37] 3장: 다시 혼자 고립	35
[사진 38] 3장: 조명 플랜	37
[사진 39] 3장: 조명 플랜	37
[사진 40] 3장: 조명 플랜	37

I. 서 론

본 연구는 히키코모리에 대한 주제로 「Happy ending」이라는 작품을 연구하고 표현 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정서적 불안감을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히키코모리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도전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결국 다시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움직임으로 풀어낸 한국무용 창작 작품이다.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 가족간의 문제,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깊은 심해에 빠지게 된다.

사람이 처음부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본인이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숨긴 것이다. 그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을 꿈꾸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깊은 바다를 하나씩 품으며 살아간다. 그 깊은 바닷속에서 각자가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은 모두 다를 것이다. 그중 나는 대인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인관계로 인해 오는 두려움을 작품 안에서 바닷속 맨 아래 땅 밑을 기어 다니는 소라게라는 소재를 비유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수면 위를 바라보지만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내 포기하고 소라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지만 계속해서 대인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지만 결국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며 뒤돌아 보게 하는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 표현 및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병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¹⁾

은둔형 외톨이 즉 히키코모리란 1970년 초반부터 일본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은둔형 외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라는 의미의 일본어의 명사형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이다. 이들은 집안에서 가족들과의 소통과 식사를 일절 하지 않으며, 밀폐된 본인만의 안식처에서 생활을 이어나간다.

1990년 말부터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본인의 의지로 방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며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6개월 이상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부르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첫 번째 학교 등교를 거부하거나 직장을 나가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경우, 세 번째 외출을 나가지 않고 방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은둔형 외톨이의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본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반응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이에 따라오는 대인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들은 거부하는 표현으로 공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공격적인 행동, 욕설, 거짓말 등을 통해 자신을 현실세계로부터 보호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5689&cid=40942&categoryId=31620>

2.2 은둔형 외톨이의 원인

은둔형외톨이의 원인으로 딱 한 가지만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원인으로서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때때로 이유를 찾을 수 가 없기 때문이다 그중 평균적인 원인으로 찾아보았을 때 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족 간의 불화, 사회적인 문제, 본인 비하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가족 간의 불화 원인으로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사회는 가족 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부모의 지나치게 자유로운 양육 방식과 과잉보호, 통제적 양육방식, 부모의 경제적 문제, 가사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및 여러 이유의 스트레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 불안감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 대다수의 많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아이가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와 반대로 지나친 간섭과 아이의 활동이나 의사소통의 결정을 부모가 선택함으로써 인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은 지나친 보호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방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김유숙 외, 2009; 이경선, 2015; 최진선, 2013). 부모의 맞벌이를 통해 자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모와대화는 줄어들어 관계적으로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방치와는 반대로 부모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 자녀의 의사 결정이나 활동을 부모가 결정하여 청소년이 너무 유약하게 되는 과잉보호, 과잉통제가 있다(김유숙 외, 2009; 손은수, 2005; 여인중, 2005; 이경선, 2015; 최진선, 2013;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齋藤環, 2002). 은둔형 외톨이들은 부모-자녀의 대화나 감정적 교류단절과 부모의과잉보호 또는 과잉통제로 의사 결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부모의 잦은 간섭이나 잔소리와 같은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 태도가 내성적 경향과 낮은 자존감,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자녀의 성격적 특성과 맞물려

2) 김신아.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2019. 부산

문제가 더욱 악화하는 것이다(김유숙 외, 2009). 부모 개인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규칙적이지 않은 양육과 부와 모 양육자들의 합의되지 않은(김유숙 외, 2009; 오윤선, 2010;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황순길 외, 2005; 齋藤環, 2002) 양육은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가치의 정립이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게 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 사회에서의 원인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 문제로 극심한 도시화와 경쟁구조 사회를 통해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점차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들은 집안과 학교에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성적이 낮으면 환영받지 못하고 성적이 높으면 대인관계나 인성 문제는 배제 된다. 오늘날 이런 사회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는 본인의 능력으로는 사회로 나아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어린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 속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현대의 경쟁사회에 부적응하는 청소년이 은둔하게 되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공부만이 살길이라는 절대명제와 공부만 잘하면 학교와 집에서 환영받는 현실로 인해 대인관계와 같은 인성적인 문제를 무시해 버린다(여인중, 2005). 이러한 환경에서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에서 살아갈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외부사회로 나가고 싶은 욕구를 보이지 않게 된다(磯部 潮, 2004).³⁾

3) 김신아.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2019. 부산

2.3 은둔형 외톨이의 정신장애

은둔형 외톨이는 의학적으로는 정신장애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중 가장 위험한 증상으로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자체는 정신장애가 아니지만, 정신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일본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평가,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은둔형외톨이의 배경에 존재하는 주된 정신장애를 ① 적응장애, ② 불안장애, ③ 기분장애, ④ 강박적 성격장애, ⑤ 인격장애, ⑥ 조현병, ⑦ 망상장애, ⑧ 전반적 발달 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 PDD), 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DHD), ⑩ 지적장애, 학습장애로 보았다(고스케 유코, 2012). 류승현(2009)는 은둔형 외톨이는 대인공포증과관련성 크고, 타인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족이나 외부의 누구로부터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받거나 긍정적 자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오윤선(2010)은 외톨이는 사회공포증, 범 불안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불안장애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또한 은둔형 외톨이현상을 보이는 대상자들이 대면접촉을 회피하고 집안에 틀어박히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감을 얻으면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다양한 정신적 건강에 관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스케 유코, 2012).⁴⁾

4) 김신아.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2019. 부산

Ⅲ. 작품의 개요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는 「Happy ending」이라는 한국무용 창작 작품에서 ‘의자-소라계의 소라’, ‘남색 의상 무용수-은둔형 외톨이’, ‘흰색 의상 무용수-외톨이를 걱정하는 타인’ 이 세 가지 주요 키워드를 대입하여 움직임 방법 및 작품의 형식을 갖추고자 했으며, intro, 1장, 2장(2-1, 2-2, 2-3), 3장 총 4개의 장으로 장면을 구성하였다.

두 명의 무용수를 이용하여 ‘의자-소라’라는 오브제를 이용하여 의자 안에 갇혀있는 소라계가 작은 소라를 이동하여 큰 소라로 이동하였지만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의자 밖으로 나오게 되며 불안함 속에서 사람과 어울리려 노력하지만 결국 혼자 남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과정을 intro 포함 4단계로 나누어서 장의 전환을 구성하였다.

[표1-1] 장면의 특성 /Intro-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이동

장면	이미지	표현 방법
Intro	작은 집에서 비좁아 보이지만 본인은 편안하게 생활하며 다른 큰집으로 이동하는 모습	작은 의자에서 편안하지만 다른 큰집을 찾아 예전의 작은집은 버린다. 작은 의자=더 이상 필요 없는 작은 안식처 여러 개의 의자 더미=새로운 본인만의 안식처

intro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의자’를 몸에 지니고 움직이며 큰 의자

더미로 이동하는 장면의 연출을 통하여 소라게 특징인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비유적인 장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1-2] 장면의 특성 /1장- 은둔형 외톨이의 혼자만의 모습과 나를 걱정하는 사람의 등장하므로 나를 밖으로 꺼내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는 모습

장면	이미지	표현 방법
1장	의지가 없고 혼자 고립되어 숨어있지만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바깥세상으로 꺼내려는 모습	무용수 A는 나가기 싫고 의자 속에 계속 있으려 하고 무용수 B는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

1장에서는 새로운 본인의 안식처를 찾은 무용수 A가 수면 위를 바라보지만 이내 포기하고 다시 고립된 생활을 시작하지만, 무용수 A를 걱정하는 무용수 B가 등장하여 위로해 주고 손을 내밀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를 통해 고립된 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1-3] 장면의 특성 /2-1장-사람과 어우러짐의 노력

장면	이미지	표현 방법
2장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본인의 한계를 넘으려는 도전	A가 B를 따라 하는 움직임 적 표현

2장은 이전의 장에서 고립된 무용수 A가 B를 따라 고립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끌려 나오게 됨으로 써 두려움으로 움츠려 있고 소극적이지만 B를 따라 함께 물들어가는 모습을 비유함으로써 본인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1-4] 장면의 특성 /2-2장-대인관계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

장면	이미지	표현 방법
2-2장	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 모습	A와 B가 점차 함께 같은 동작으로 움직임 적 표현을 진행

2-2장에서는 이전 장과 달리 점차 사람과 어울리고 적응하는 모습을 표현함으로 본인의 한계를 넘은 듯한 모습 보이지만 그 속에서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 은둔형 외톨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1-5] 장면의 특성 /2-3장-본인 한계의 도전 실패

장면	이미지	표현 방법
2-3장	옆에서 이끌어 주는 사람의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람과 어울림보다 혼자 고립된 삶이 더욱 편하다는 것을 느낌	A와 B가 점차 어긋나는 움직임과 서로 바라보는 방향들 다르게 표현하였다.

2-3장에서는 사람과 어울리고 적응하는 모습이 아닌 점차 어긋나는 움직임적 표현과 A와 B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짐으로 A는 결국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삶이 아닌 혼자 고립된 삶을 선택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하였다.

[표1-6] 장면의 특성 /3장-본인에겐 행복한 결말

장면	이미지	표현 방법
3장	결국 사람과에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결국 혼자만의 고립된 생활로 돌아간다.	A는 B가 내민 손을 잡지 않은 채 결국 혼자 의자 더미로 돌아가며 고립된 생활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표현

3장에서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고 B가 내밀어 준 손을 잡지 않은 채 처음과 같은 자리 즉 의자 더미로 되돌아가며 혼자 고립된 모습

을 표현하였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슬픔과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은둔형 외톨이인 A는 혼자 남는 것이 본인에게는 결국 행복한 결말인 것을 제목과 마지막에 혼자 남는 움직임을 통해 비유적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 매체

3.2.1 움직임 표현 방법

「Happy ending」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 내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이 작품의 주요 키워드인 소라게, 은둔형 외톨이를 기반으로 하여 움직임의 감정, 에너지, 질적 느낌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행위 및 무용적인 움직임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두 명의 무용수의 감정적 변화와 점차 어긋나는 움직임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Happy ending」에서의 움직임 표현 방법을 [표 2] 으로 정리하였다.

[표2] 움직임 표현 방법

동기	표현 방법	기대효과
시간 (time)	타이밍을 이용한 동작의 의미 표현	두 명의 무용수가 움직임을 시작하는 타이밍을 다르게 진행하여 똑같은 동작을 다른 타이밍에 시작하여 점차 서로 다른 타이밍과 다른 동작으로 연계시키면서 작품의 내용을 더욱 편하게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공간 (space)	무대 공간의 분리	무대 상수 다운 스테이에서 소품을 이용하여 고립된 공간을 분리하였고, 무대 중앙에서 두 명의 무용수가 함께 움직임을 하였을 때 대인관계와 어우러짐을 표현하였고 마지막 장에서 상수 하수로 공간을 나누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효과를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3.2.2 의상



<사진1> 무용수 A 의상



<사진2> 무용수 B 의상

의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점을 둔 것은 무용수 A와 B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의 구도적 내용상 은둔형 외톨이인 무용

수 A와 손을 내밀어 주는 인물인 무용수 B가 서로 대비되는 색상을 착용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어두운 네이비 색상이 주는 암울함과 순수하고 현실에 때문지 않은 아이보리색을 의상 색상으로 선택함으로 작품의 내용에 효과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상의는 시스루 재질에 목폴라 느낌으로 단정한 디자인을 선택하였고, 하의로는 활동하기 편리한 와이드 핏의 통이 넓은 바지로 선택하였다.

디자인은 무용수 A와 B의 통일성을 주어 결국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면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바뀐다는 비유적으로 의미하며 표현하고자 하였다.

3.2.3 소품

소품으로는 크고 작은 다양한 크기와 다른 디자인들의 의자 7개를 기이하게 쌓아 올려서 소라게가 이동하는 큰 소라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의자는 편안함과 안식처의 의미가 강하지만, 의자를 기이하게 쌓아 연출함으로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의자 더미가 은둔형 외톨이인 본인에게는 안락한 휴식처이자 안식처인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진3> 소품: 의자

3.2.4 조명

「Happy ending」의 무대조명은 작품의 흐름과 이야기의 전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와 작품의 스토리에 맞춰서 각 장마다 색감과 강조하는 부분의 조명을 사용하였다. 소라계의 특성인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담은 Intro 부분에서는 어두운 조도의 무대 중앙에 넓은 편 조명을 사용하여 외로움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쓸쓸함과 어두운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소품인 의자 더미에만 편 조명을 사용하였다. 2장 부분에서는 무용수 B와 어울린다는 의미에 맞게 조도가 낮은 파란색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3장에서 따뜻한 느낌의 주황색으로 색을 교체하여 두 무용수가 서로 포용한다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노란색 계열에서 사람과 어울리기를 포기하고 외면하는 순간에 전체 중앙 조명은 꺼놓은 채 무대 뒷벽에 어두운 노란색 계열을 사용함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표3] 조명의 구성

장면	조명	분위기
Intro	화이트(어두운 조도), 중앙 조명	쓸쓸함
1장	어두운 조도의 화이트(차갑고 외로운 느낌) -탑 조명	고립, 외로움
2장	어두운 조도의 파란색(차갑고 외로운 느낌) -중앙 전체 조명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
3장	주황색→어두운 노란색 (도전→포기) -back, 전체, 탑 조명	한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다시 고립



<사진 4-1> Intro 조명



<사진 4-2> 1장 조명



<사진 4-3> 2장 조명



<사진 4-4> 3장 조명



<사진 4-5> 결말 조명

****위부터 Intro, 1장, 2장, 3장, 결말의 조명 변화

3.2.4 음악

① 1장 음악-(겨울바다 파도소리-네이처콜링)

1장은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3분 55초의 음악이며, 소라계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효과로 파도 소리만 들리는 음악을 선택하였다.

② 2장 음악-(Hello snow-김재덕)

2장의 음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무용수의 이미지와 어우러지는 희망적이지만 그 안에 암울한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일정한 박자의 음악을 사용함으로 무용수 A의 두려움, 새로운 장소 이동에 대한 불안함에 관한 마음의 심리를 음악적인 효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③ 3장 음악-(Failling Dwon-김재덕)

3장의 음악은 이전 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확연하게 드러나는 암울함과 침울함의 복합적인 이미지의 음악을 선택함으로 무용수 A가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혼자 사는 삶을 택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참 울하고 잔잔한 음악을 선택하였다.

IV. 작품분석

4.1 작품의도

나는 어려서부터 남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으며 항상 가장 친했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곤 하였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 친구에게 실수한 것이 있었나?’ 등 가장 친했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나의 대인관계는 점점 좁아져 갔고 나는 점점 혼자 밥 먹고, 혼자 쇼핑 하고, 가만히 방에만 있고, 혼자 있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나의 대인관계는 정말 친한 친구 5명이 전부인 삶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의도로만 본다면 ‘은둔형 외톨이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외톨이인데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였지?’ 의문이 들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연구활동을 한 이유는 고등학교부터 같은 무용계에 속한 친구들은 겉모습은 친구지만 앞에서 나에게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모습에 회의감이 들었고, 대학을 와서 만난 친구들도 뒤에서 왈가왈부하며 나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뒷말이 있었다는 것을 졸업 후에 알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본인들의 힘듦과 고민들은 중요하며 내가 느끼는 인생의 고민들과 힘듦은 그저 배부른 소리였는가?’ 이러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나는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에 더욱더 두려움과 어려움만 쌓여갔고 남들에게 내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며 한동안 방안에서만 생활하는 외톨이를 경험해 보았다. 이러한 의도를 생각하다 보니 생각난 것이 소라게였고 소라게는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이동하지만 결국은 혼자 생활하는 특징과 은둔형 외톨이 즉 히키코모리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소재를 소라게&은둔형 외톨이로 설정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깊은 바다 한씩 품으며 살아간다. 각자가 느끼는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 나는 대인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을 바닷속 맨 아래 땅 밑을 기어 다니는 소라계에 비유하였다. 수면 위를 바라보지만 본인은 올라가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내 포기하고 소라계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였다. 나는 계속해서 대인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지만 결국 나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제목의 의미로는 일반적인 대인관계가 완만한 사람들은 혼자 남는 것이 왜 「Happy ending」인 것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은둔형 외톨이인 ‘나’는 결국 혼자 생활하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지만 결국 혼자 남는 것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Happy ending 인 것이다.

4.2 작품내용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깊은 바다 하나씩 품으며 살아간다. 각자의 깊이가 다른 바닷속 맨 아래 땅속에 ‘나’라는 인물은 수면 위를 바라보지만, 본인은 올라가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내 포기하는 모습을 본 주변인이 바깥세상으로 떠밀고,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나’는 계속해서 소라계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인’이 같이 잘 지내 보자며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를 붙잡고 어울려보지만 결국 ‘나’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의 보호처인 소라 집에 엮매여 남은 생을 살아간다.

4.3 Intro : 사건의 발생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Intro에서 소라계의 특징인 등껍질을 소품인 의자로 비유하여, 그 속에서 자신만의 도피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 받고 소라속안에 숨어 혼자 고립된 장면을 담고 있다. 현재 내가 느끼는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5> Intro: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동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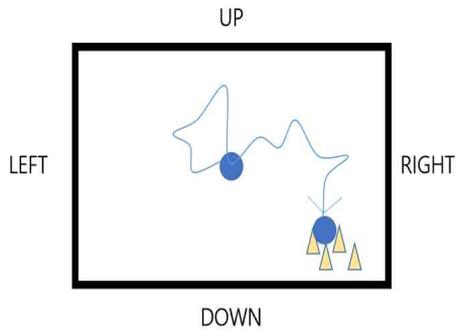


<사진 6> Intro: 큰 집으로 이동 후 장면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은 의자 시작으로 큰 의자더미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작은 움직임에서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확장적인 움직임 표현의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소라게의 특징인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소품인 의자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표현 하였다. <사진4>, <사진5>에서 무대 중앙에서 시작하여 상수 다운 스테이지에 있는 의자 더미로 이동하여 소라집이 바뀔 것을 암시한다.

● = 무용수 A, ● = 무용수 B, ▲ =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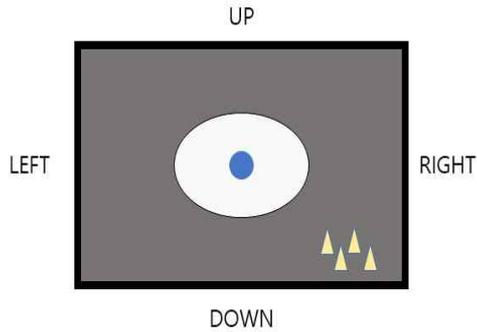
<그림 1-1> Intro: 플로어 패턴

4.3.3 음악

첫 장면의 음악은 3분 55초 동안 반복되는 파도 소리 효과음이고 작은 파도 소리부터 큰 파도 소리까지 점차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기를 반복하는 음악을 선택하였다. 음악이 먼저 시작되면 뒤이어 중앙 핀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며 땅 밑에 있는 소라게와 흡사한 움직임을 창작하였다. 음악 중반부부터 1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노래가 끝난 뒤 혼자 고립된 상황

을 연출하였다.

4.3.4 무대장치 및 조명



<그림 2> Intro: 조명 플랜



<사진7> Intro: 조명 플랜

Intro 첫 장면에서 낮은 조도의 중앙 핀 조명을 사용하여 암울한 분위기와 의자 더미들이 살며시 비추어지면서 의자의 의미를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였다.

4.4 1장: 고립된 공간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숨어사는 무용수 A는 작은 소라에서 큰 소라로 이동을 하였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생활을 이어 나아간다. 본인이 정한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는 모습을 본 주변인이 인사도 청하고 악수도 청하지만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자 무용수 B는 무용수 A를 끌고 나가기 시작한다. 끌고 나아가는 것을 버텨보지만 결국 다른 장소로 처음 이동한 무용수 A는 계속해서 의자로 돌아가려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통해 사회 부적응과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 본인이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주변의 도움이 있어도 은둔형 외톨이에서 쉽게 벗어 날수 없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8>장소 이동



<사진 9>고립된 상황

<사진 8>,<사진 9>은 Intro에서 파생된 움직임에 의하여 1장 시작의 첫 부분이다. 1장의 주요 키워드는 고립, 슬픔, 외로움 이러한 암울함 속에서 나오는 편안함을 기반으로 소라게를 연상시키는 한국무용 창작적인 움직임을 활용하여 솔로 독무로 발전시켰다.



<사진 10>내미는 손길



<사진 11>위로의 포옹

<사진10>과<사진11>은 타인인 무용수 B가 등장하여, 고립되어 있는 무용수 A에게 악수를 청하고 포옹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뿌리치는 움직임을 연출하였다.



<사진12>타인의 대한 경계



<사진13>타인의 의해 이동

<사진12>과<사진13>에서 그동안 받은 타인에 대한 본인의 상처로 인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를 시작한다. 그러나 무용수 B는 경계를 하는 무용수 A를 억지로 의자 더미에서 끌어내고 타인과의 접촉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으로 큰 움직임까지 확장되지만, 무용수 A는 계속해서 되돌아가려고 한다.



<사진14>타인의 대한 경계

<사진15>타인과 적응하지 못함

<사진14>에서 타인에 의해 자신의 안식처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휩싸여 소극적이고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움직임 적 표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진15>는 다가가지 못하고 결국 외면하여 원래 본인의 안식처에서 편안함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사진16>이끌려 가는 무용수 A

<사진17>우호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본인의 한계를 넘으려는 노력

<사진 16>에서 타인에게 이끌려 본인의 한계를 넘어 보려는 시도를 하지만 <사진 1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신체적 접촉은 있지만 아직은 경계한다는 움직임적 표현을 위해 시선처리로 마주 보는 시선이 아닌 서로 수직 상태의 시선으로 연출하였다.



<사진18>타인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

<사진19>같이 함께하자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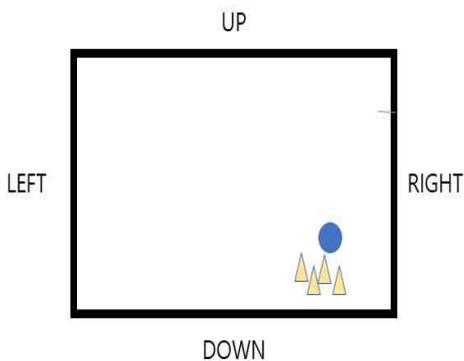
<사진20>타인을 믿어 보기로 함

<사진21>여전히 서로 다른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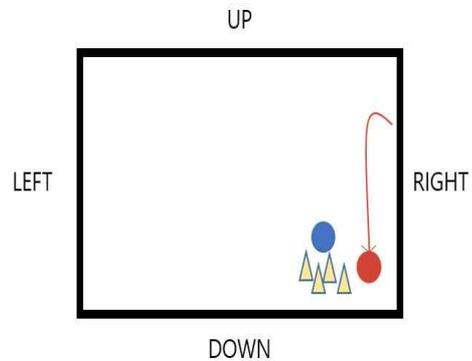
<사진 18>, <사진 19>에서 무용수 두 명이 함께 같은 동작을 연결시키지 않고 서로 다른 동작과 시선을 연출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는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간다.

<사진 20>에서 두 무용수가 같은 동작을 연결시킴으로써 타인의 대한 적대감이 조금은 사라졌지만, <사진 2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여전히 둘은 서로 다른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서로 다른 시선처리, 높이의 차이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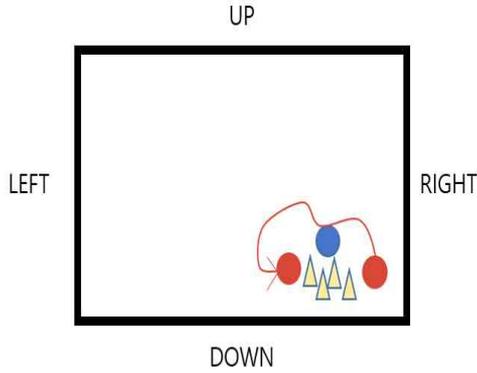
1장에서의 플로워 패턴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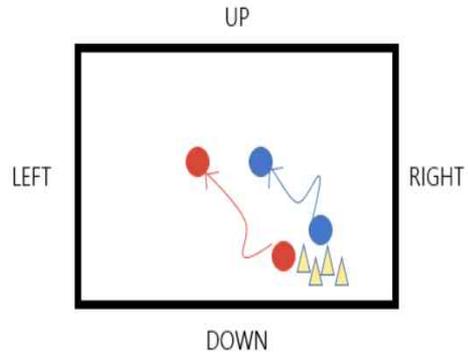
<그림3-1> 1장 플로어 패턴



<그림3-2> 1장 플로어 패턴



<그림3-3> 1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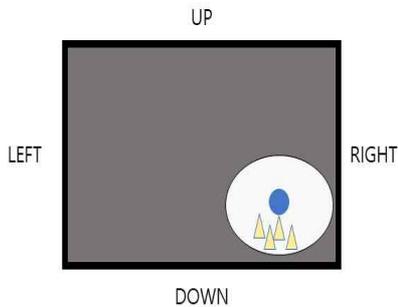


<그림3-4> 1장 플로어 패턴

4.4.3 음악

2장의 음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무용수의 이미지와 어우러지는 희망적이지만 그 안에 암울한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일정한 박자의 음악을 사용함으로 무용수 A의 두려움, 새로운 장소 이동에 대한 불안함에 관한 마음의 심리를 음악적인 효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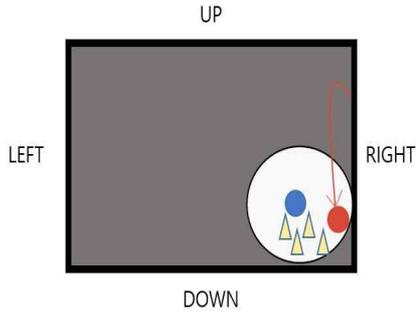
4.4.4 무대장치 및 조명



<그림 4-1> 1장: 조명 플랜



<사진 22> 1장: 조명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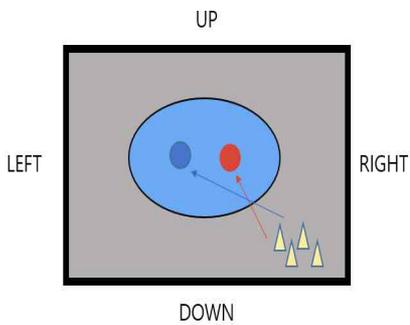


<그림 4-2> 1장: 조명 플랜



<사진 23> 1장: 조명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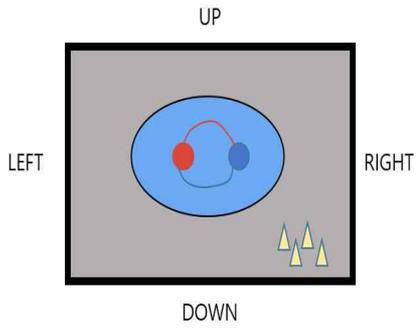
<그림 4-1>과<그림 4-2>장면에서는 중앙 핀 조명을 무대 상수 다운 스테이지로 옮겨서 좀 더 고립되고 갇혀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였고 무대 전체 조명은 사용하지 않은 채 핀 조명을 사용함으로 관객들이 소품과 무용수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그림 4-3> 1장: 조명 플랜



<사진 24> 1장: 조명 플랜



<그림 4-4> 1장: 조명 플랜



<사진 25> 1장: 조명 플랜

<그림 4-3>과<그림 4-4>조명에서 중앙에 조도가 낮은 파란색 계열에 색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우울한 분위기와 주변 조명들은 암전 시켜 깊은 심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4.5 2장: 한계 도전과 실패

4.5.1 내용 및 안무 의도

2장에서는 1장과 달리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신뢰를 쌓지 못하는 무용수 A. 본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1장과 확연히 다른 조명 색상 선택과 똑같은 움직임의 반복을 하고 있지만 반대되는 동선 사용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사용함으로 결말에 이야기를 2장 끝자락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사진 26> 2장: 심리 변화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27> 2장: 심리 변화



<사진 28> 2장: 타인에게 적응

<사진 27>, <사진 28>은 1장과 대비되는 붉은 주황빛의 조명과 뒷막을 걷어냄으로 어두웠던 분위기가 타인과의 완만한 관계로 변해가고 있는 스토리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무용수 A와 B가 서로 완전히 다른 동작과 같은 동작 움직임을 진행하면서 무용수 A의 심리 또한 반신반의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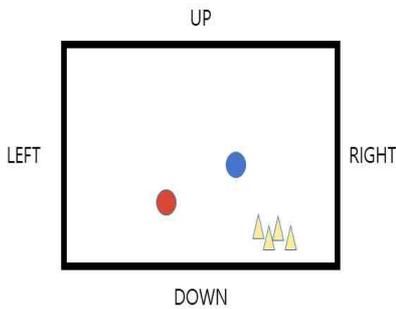


<사진 29> 2장: 중립된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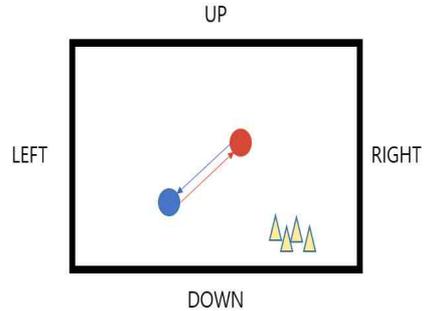


<사진 30> 2장: 점점 포기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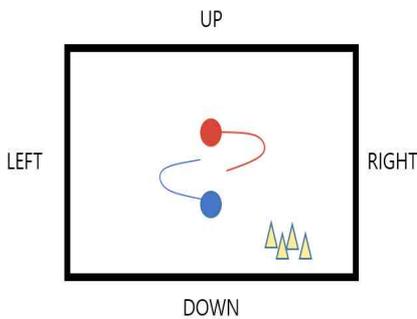
<사진 29>에서 무용수 A가 B를 따라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되기 위해 서로 같은 움직임을 진행하고 <사진 30>처럼 서로 다른 방향과 시선처리를 하여 점차 포기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2장의 플로어 패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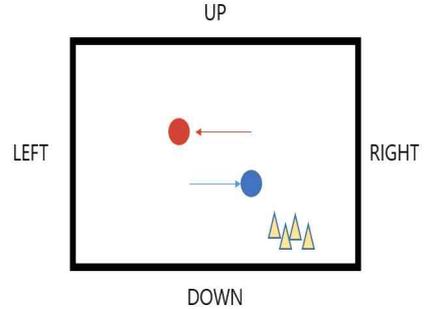
<그림 5-1> 2장: 플로어 패턴



<그림 5-2> 2장: 플로어 패턴



<그림 5-3> 2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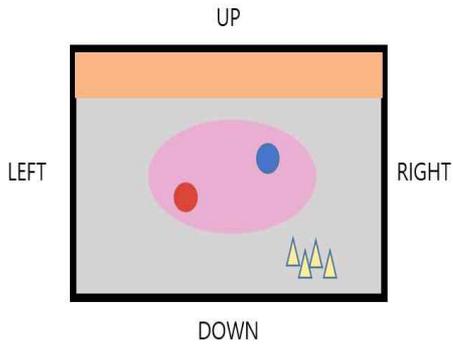


<그림 5-4> 2장: 플로어 패턴

4.5.3 음악

2장의 음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무용수의 이미지와 어우러지는 희망적이지만 그 안에 암울한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일정한 박자의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무용수 A의 두려움, 새로운 장소 이동에 대한 불안함에 관한 마음의 심리를 음악적인 효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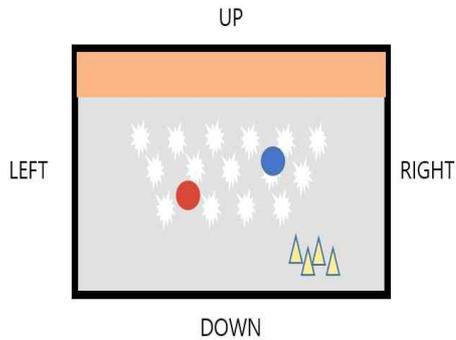
4.5.4 무대장치 및 조명



<그림 6-1> 2장: 조명 플랜



<사진 31> 2장: 조명 플랜



<그림 6-2> 2장: 조명 플랜



<사진 32> 2장: 조명 플랜

2장에서 뒤 막을 걷어내어 주황색의 조명 색을 밝게 표현하고, 희망이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1장과 다르게 온기가 있는 주황색을 선택하여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4.6 3장: 극복 실패

4.6.1 내용 및 안무 의도

3장에서 완전히 어긋난 두 명의 여자 무용수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서로를 외면한 채 움직임의 동작을 진행하다가 그 둘은 서로 원의 형태로 달리고 있지만, 서로에게 닿을 수 없다. 서로는 멈춰 서서 마주 보고 무용수 B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무용수 A는 결국 이것을 잡지 않은 채 다시 혼자가 되어 의자 속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움직임의 의도로는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용수 A는 타인의 손길을 잡지 않고, 쳇바퀴 돌 듯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제자리걸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실패를 의미한다. 이로써 다시 혼자만의 고립된 생활로 되돌아가 본인 혼자만의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사진 33> 3장: 극복 실패

4.6.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 34> 3장: 제자리 걸음



<사진 35> 3장: 마지막 손길



<사진 36> 3장: 결국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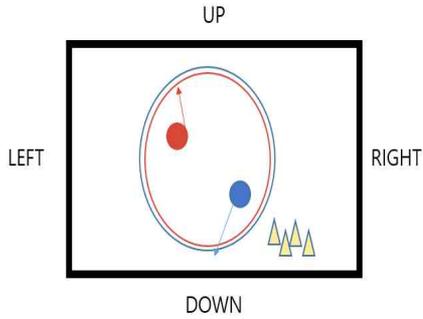


<사진 37> 3장: 다시 혼자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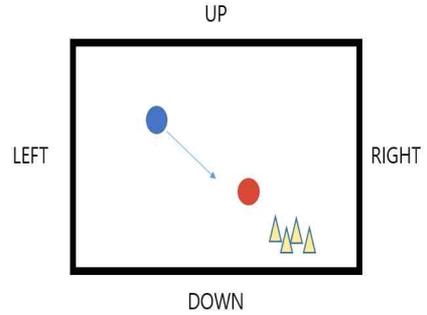
<사진 34>에서 서로 다른 동작 움직임을 통해 서로 완전히 어긋난 이미지를 보여주고 난 뒤 서로를 바라보며 뛰고 있지만 쳇바퀴 돌듯 이들은 서로에게 닿지 못한다. 관객들이 이를 바라보았을 때 은둔형 외톨이의 무용수 A는 타인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모습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두 가지로 이해하게끔 연출하였고, <사진 35>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는 이미지를 나타나게 하였다. <사진 36>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타인이 내밀어 준 손길을 거부한채, <사진 37>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다시 스스로를 가둔 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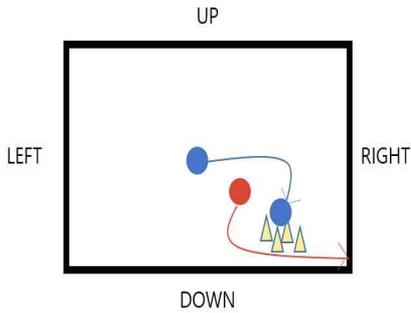
3장의 플로어 패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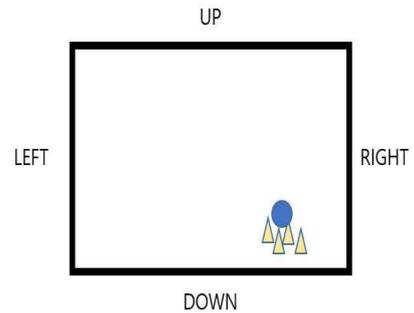
<그림 7-1> 3장: 플로어 패턴



<그림 7-2> 3장: 플로어 패턴



<그림 7-3> 3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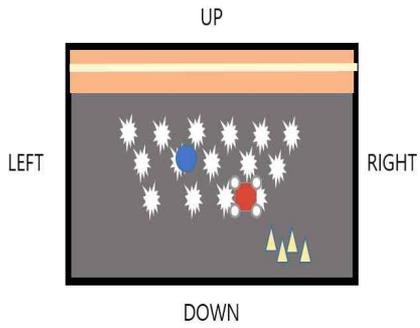


<그림 7-4> 3장: 플로어 패턴

4.6.3 음악

3장의 음악은 이전 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확연하게 드러나는 암울함과 침울함의 복합적인 이미지의 음악을 선택함으로써 무용수 A가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혼자 사는 삶을 택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참 울하고 잔잔한 음악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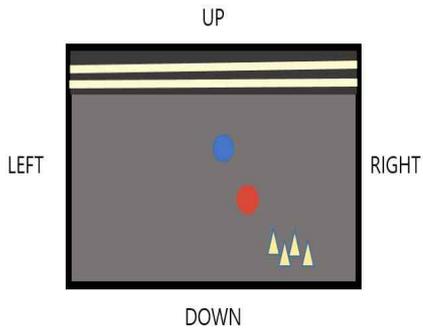
4.6.4 무대장치 및 조명



<그림 8-1> 3장: 조명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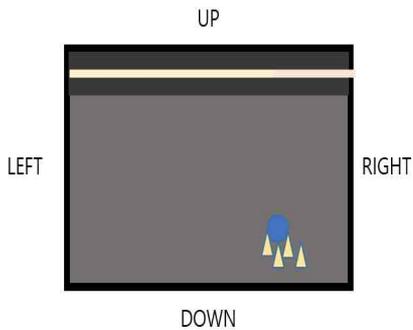
<사진 38> 3장: 조명 플랜



<그림 8-2> 3장: 조명 플랜



<사진 39> 3장: 조명 플랜



<그림 8-3> 3장: 조명 플랜



<사진 40> 3장: 조명 플랜

<그림 8-1>에서 2장과 똑같은 조명효과를 통해 내용의 통일성을 주었고 조도를 낮추어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그림 8-2>과 <그림 8-3>에서 뒤 막에 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암전 시켜서 무용수들의 실루엣만 보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효과로 비극적인 결말의 좀 더 어울리도록 표현하였다.

V. 결론

「Happy ending」은 소라게에 비유하여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배신감으로 인해 타인과 사회생활로부터 고립된 ‘나’라는 인물이 본인을 걱정하는 타인에 의해 의자 밖으로 나오게 되며 점차 두려움을 극복하다가 결국 다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무용수 A는 B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고 격한 경계심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수 B는 계속해서 악수를 청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얼음같이 얼어붙어 있던 무용수 A의 마음이 따뜻함으로 인해 점점 녹게 되지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무용수 B를 외면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 다시 스스로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며 타인에겐 비극, 본인에게는 이러한 삶이 최선에 삶이라는 결론을 지으며 작품이 마무리된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도 생기고 그랬는데 좀 그 친구들로부터 배신이라고 해야 하나 어 은따 같은? 왕따까지는 아니고... 저를 멀리하는 거 같더라고요. (중략) 사실 그냥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전학 오고 나서도 6학년 때 한동안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반에서... 처음에는 그 다른 애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애가 전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4>

연구 참여자들은 은둔 경험 전 세상에서 맺는 관계들로부터 상처 입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는 모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친구 관계에서 상처 입었던 힘든 경험이 있었다. 5)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숨어버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인관계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은둔자 계’, 소라게라는 소재와 제목을

5) 이지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2019. 경상남도

통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등을 돌리고 도피하고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뜻깊은 위로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용수 A가 무용수 B를 통해 조금이나마 작은 시도를 하는 과정, 결국 다시 스스로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결말로 지으며, 이 증상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혼자가 되어도 좋다. 허나 한 번쯤 우리를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해 도전해보자’라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예술의 표현은 한계가 없는 무궁무진한 표현 매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 작품을 연구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싶었다. ‘그대들의 바다는 평온하신가요?’ 연구자는 결국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 이지민. (2019).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은둔 경험의 관한 현상학적 연구” d
국내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경상남도
- 김예슬. (2007).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서울
- 허경운. (200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문제와 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
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 류승현. (2009).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에 관한 고찰.” 국내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
- 김신아. (2009).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
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부산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5689&cid=40942&categoryId=31620>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Happy ending
일시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PM 19시
장소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극장
안무자	신상희
출연진	신상희, 박지예
의상디자인	쟁이의상실
조명감독	주영석
사진/영상감독	Hanfilm

프로그램 북

- 2 한성대학교
- 0 무용학과
- 2 석사학위청구
- 1 작품발표회

첫 — 발걸음



2021
11. 27. SAT. 7PM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



안무
신상희

제목 **HAPPY ENDING**

작품 내용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서로 다른 깊이의 바다를 하나씩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 깊이는 본인 이외에 알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설불리 그 깊이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바닷속은 평온하신가요?

작
품
의
도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깊은 바다를 하나씩 품으며 살아간다. 그 깊은 바닷속에서 각자가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은 모두 다를 것이다. 그중 나는 대인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본 작품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표현방법 연구로, 인간관계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정과 그 감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작품 안에서 '바닷속 맨 아래 땅 밑을 기어 다니는 소라게'라는 특정한 소재를 선정하였고, '소라게'를 통해 작품의 내적 감정선을 비유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수많은 소재 중에서 하필 소라게를 선택한 이유는 수면 위를 바라보지만,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내 포기하고 소라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으나 상처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그러나 그 발버둥의 끝에서 나는 그 한계를 넘지 못했으며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 작품을 통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고뇌를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무
용
수



—
박
지
예
—

지도교수 김남용

ABSTRACT

A Study on Creative Dance Work, 「Happy ending」

Shin, sang hee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As a thesis on Hikikomori the researcher has interpreted, this is a research and work analysis on the conclusion in which a secluded loner who aims to overcome one's limitation goes back to one's own haven soon.

Hikikomori, that is a secluded loner is defined as a person who has no friend at all or does not participate in society as a member. In this case, there is no emotional exchange or conversation with family members either. The reason could be found in parenting style. A lot of parents have the permissive parenting style or overprotective parenting style. Also, the current social problems like educa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ination, and excessive stress from studies are causing many educational problems. Such educational problems and social structural problems as a whole society could be the

reasons why people become a secluded loner.

Because of many social and domestic reasons such as sharp remarks heard from people, slander, jealousy, harsh glare from others, lookism, sexual harassment, violence, bullying, failure in getting a job, and parents' over-involvement, they hide themselves in their own haven and never get out of the place.

Among them, this choreographer aimed to talk about the interpersonal issue. By creating a character of 'myself' who chose to voluntarily become a secluded loner, so-called Hikikomori in a space regarded as comfort and calmness after closing the door of mind by feeling afraid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choreographer aimed to express the secluded loner by comparing it to a hermit crab.

In the growth process, a hermit crab moves from a small shell to a bit bigger shell. For this characteristic, it is called 'hermit crab'. Using this characteristic, the hermit crab that moves from a small house to a bigger house was used as a material of secluded loner(Hikikomori).

This choreographer thinks the life of a hermit crab that looks up the surface of the water, gives up soon after realizing it can't go up, and moves from a shell to another resembles the life of a secluded loner.

Through this work, this choreographer expressed and analyzed the look of looking back on oneself who kept feeling difficult in continuing social life together with other people.

【Keyword】 Hiki Komori, A secluded loner ,a hermit cra